

택시비

피가 많기로 소문난 정 일병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가는 중이었다. 기분 좋게 택시를 불러 탄 것까진 좋았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문득 호주머니를 살펴보니 돈이 한 푼도 없었다. 자칫 망신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정 일병은 지금이 바로 자신의 기지를 발휘할 때라고 판단하며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.

“아저씨! 담배 좀 사게 저기 담뱃가게 앞에서 잠깐만 세워 주세요!
그런데 아까 차 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떨어뜨렸는데 어두워서 그런지 도무지 못 찾겠네요. 혹시 기사님 제 수표 보셨습니까?”

그리고선 급히 택시에서 내려 담뱃가게로 뛰어 들어갔다. 뒤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택시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.